

“첫 도전 현대무용, 용기를 내는 과정”

‘위너’ 김진우, 현대무용 ‘어린왕자’ 캐스팅

아이돌 그룹들 중 ‘어린왕자’ 역에 어울리는 멤버를 꼽으라면 ‘위너’의 김진우(25)가 가장 먼저 거명된다. 하얀 피부에 순수한 눈매를 지닌 그는 성격도 순박하다. 전남 신안군 섬 입지도 출신 ‘섬청년’이다. 삶 역시 속소, 회사, 일정으로 단조롭다. 그의 주변 관계자들은 “진우보다 순수한 사람은 못 봤다”고 입을 모은다.

그가 현대무용 무대에서 드넓고 막막하며 황량한 사막을 들여다본다. 국립현대무용단 ‘어린왕자’(12월 9~11일 예술의전당 CI토월극장·안무 안예순 예술감독)에서 타이틀롤을 맡는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의 동명 동화를 바탕으로 만드는 가족 무용극이다. 지난해 초연 당시 3D 테크놀로지, 플라잉 기법 등을 활용한 역동적인 무대 연출로 주목 받았다.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밀정’의 영화감독 김지운이 구성과 대본을 맡았다.

대중음악, 클래식, 국악, 무용 등을 아우르는 뮤지션 정재일이 음악을 담당했다.

무엇보다 ‘어린왕자’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이곳의 세계를 바라본다. 그에 적합한 이미지와 춤에 대한 열정으로 땀을 뼀 김진우의 ‘어

린왕자가 기대를 모으는 이유다. 그는 현대무용을 처음 접한다. 아이들이 현대무용 무대에 오르는 것 역시 드물다.

국립현대무용단에서 YG에 어린왕자에 적합한 아이돌 추천을 부탁했고, 그간 노래에 치중하던 김진우가 의욕을 보이면서 이번 캐스팅이 성사됐다.

최근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만난 김진우는 “용기를 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어린왕자가 위너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애니메이션으로 처음 접했고, 나중에 책으로 봤어요. 제가 느꼈던 감정을 현대무용으로 잘 표현하고 싶어요.”

개인 연습은 3주째, 단체 연습은 2주째 접어들었는데 “재미있다고 웃었다. 일단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을 많이 했죠. 아이돌 안무와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2014년 위너 멤버로 데뷔한 김진우는 이 팀의 보컬 라인이다. “승훈이가 워낙 춤을 잘 춰요. 하지만 보컬 라인이라고 해서 춤을 마음껏 못 추는 것은 없어요. 잘 알맞게 배분이 돼 있죠. 다만 현대무용은 연습만으로도 자유로워지고, 표현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위너의 최근 활동은 지난 2월 발매



그룹 ‘위너’의 김진우

한 앨범 ‘엑시트:트’, 최대한 빨리 컴백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김진우는 “경험하지 못한 춤을 익힌 터라, 곧 활동을 시작할 위너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라고 기대했다.

개인이 성장한 만큼 팀 자체 활동도 성숙해진다

현재 위너 멤버가 아닌 김진우로서

나서고 있는 그는 “버스 광고 등에 저 혼자만 나온 것이 부끄럽기도 자랑스럽기도 하고 묘한데 아무쪼록 팀 활동에 시너지를 내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현대무용계에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겸손해했다. “현대무용계에 낯선 사람이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 있잖아요. 다행히 관계자들이 너무 잘 해주세요. 이제 남은 것은 제 몫이죠. 잘 소화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현대무용단뿐만 아니라, 위너, 저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잖아요.”

김진우는 최근 ‘어린왕자’만 생각한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제가 진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꿈속에서도 어린왕자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계속 느껴져요. 제가 예술의전당 무대에 섰을 때 이질감이 들지 않았으면 해요.”

김진우와 위너 멤버들의 롤모델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소속사 선배들이인 한류그룹 ‘빅뱅’. 연기에 대한 갈증도 가득한 김진우는 연기할 때는 배우 최진실처럼 어린함을 주고 싶다고 했다. “혼자만 잘 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게끔 성과를 이뤄내야죠. 빅뱅 선배님들, 최진실 선배님이 그렇죠. 현대무용도 그 길 중에 하나였으면 해요.”

/뉴시스

전북스포츠클럽, 소외계층 청소년 체육용품 전달

전북스포츠클럽(회장 이대원)이 12월 1일 전주소년원을 찾아 체육용품 전달식을 가졌다.

소외계층 생활체육활동 여건 조성 및 사회 융화를 위해 진행된 이번 전달식은 전북스포츠클럽 관계자와 소년원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클럽은 또 이 사업을 통해 체육 활동 참여계층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도 양질의 체육 프로그램과 지도자, 시설 등을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민근기자

전북현대 김보경, 품절남 된다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의 2016 AFC 우승의 주역이자 국가대표 허리의 든든한 버팀목인 김보경이 미모의 신부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김보경 선수는 오는 4일 일요일 오후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HI층 하모니 볼룸에서 미모의 승무원 김혜란(26)과 결혼식 갖는다.

김보경은 2011년 대표팀 차출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하늘에서 김혜란 양을 만나 인연을 맺었다.

5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하는 김보경은 “결혼을 앞두고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하면서 이미 너무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좋은 기분 속에서 결혼해 행복하다. 그만큼 잘 살겠다”고 결혼 소감을 전했다.



/김민근기자

‘아시아 챔피언 전북현대’ ACL우승 축하공연·환영행사 진행

내일 오후 2시 전북도청광장서

전라북도가 아시아의 축구챔피언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을 위해 내일 오후 2시 전북도청광장에서 화려한 축하공연 겸 환영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환영행사는 열광적인 사랑을 보내는 전북 서포터즈 MCB와 도내의 축구팬들을 비롯해 전북현대의 이철근 단장, 최강희 감독과 주장 이동국 선수를 비롯한 모든선수단이 참석해 우승소감 청취, 싸인볼 객석차기, 팬사인회, 비보이 공연 등 팬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축하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도 역시 송하진 도지사와 황현 도 의회의장을 비롯해 주요요직의 내빈이 대부분 참석하여 대회를 빛낼 계획이다. 전북은 지난 20일 저녁 UAE 알아인 클

럽을 꺾고 10년만에 아시아 정상에 탈환했다. 1차전을 홈에서 2대1로 이긴 후, 2차전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으나 합계전적 1승 1무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2011년 홈에서 승부차기로 지며 불운의 준우승을 거둔지 5년만에 만들어낸 쾌거였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현대 FC를 비롯해 도내 체육인들이 도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수시로 전해주고, 특히 이번 전북현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정상 등극은 전북의 위상제고와 도민들의 사기를 올려 준 특별한 계기가 되어 주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철근 단장은 “전북현대는 전라북도를 연고로 하는 구단으로써 전북을 대표하고 전북의 자랑이 되기를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김민근기자



전라북도가 아시아의 축구챔피언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을 위해 내일 14시 전북도청광장에서 화려한 축하공연 겸 환영행사를 진행한다.

엔조 지단, 레알 마드리드 1군 무대 첫 골 신고

아베인 감독 앞에서 아들이 데뷔골을 터뜨렸다.

지네딘 지단 감독의 장남인 엔조 지단은 1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16~2017 코파 델 레이(스페인 국왕컵) 32강 2차전 콜트랄 레오네사와의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 1군 무대 첫 골을 신고했다.

엔조는 팀이 3-1로 앞선 후반 18분 페널티 에어리어 정면에서 오른발 발볼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동 방향의 반대로 공을 차 골키퍼의 타이밍을 빗었다.

엔조는 지단 감독의 첫째 아들이다. 아버지를 닮아 184cm 80kg의 탄탄한 체격을 자랑하는 그는 현역 시절 아버지와 같은 미드필더로 뛰고 있다.

3부리그와의 국왕컵을 맞아 모처럼 1군 출전 기회를 잡은 엔조는 데뷔골로 아버지의 눈도장을 찍었다.

지단 감독은 경기 후 스페인 마르카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로서, 감독으로서 엔조의 활약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2진급 선수들로 나선 레알 마드리드는 6-1 대승을 거둬 1/2차전 함께 13-2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FC바르셀로나는 3부리그인 헤라클레스와 32강 1차전에서 1-1로 비겼다. 리오넬 메시-루이스 수아레스-네이마르가 모두 빠진 바르셀로나는 한 골밖에 넣지 못하면서 승수 쌓기에 실패했다.

바르셀로나는 오는 22일 안방에서 2차전을 갖는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